

민주 탈당-공천 잡음에 '지지율 정체'...이재명 공천 관리 '난제'

민주 지지율 주춤 양상...11월 5주차 이후 열세 비명계 탈당·친명 공천 논란에 지지율 정체된 듯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이재명계 인사들의 탈당과 사전 공천 잡음으로 국민의힘에 역전된 상태로 한 달 이상 정체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을 두고 계파 갈등이 심화해 추가 탈당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천 관리가 이재명 대표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 보다 뒤쳐진 상태에서 정체가 지속되자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전망을 두고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여론이 형성하고 있는데도 정작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에게 밀리는 형국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3%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근 두 달 간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주춤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5주차 조사에서 34%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을 1%포인트 격차로 제쳤지만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민주당은 33~34%에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 등판 전후로 지지율이 35%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이재명계가 집단 탈당하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1일 탈당을 한 선언한 이 전 대표는 다음달 초 '새로운미래'(가칭) 중앙당 창당을 열 계획이다. 비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도 '미래대연합'(가칭) 창당 준비에 분주하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과 당원들의 동반 탈당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신경민·최윤열 전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현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탈당해 이낙연

신당 참여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도 민주당을 떠났다.

지난 16일에는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과 청년 당원 1000명이 탈당을 선언했다. 전날에는 홍서윤 전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원들이 탈당해 미래대연합에 합류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를 향한 친명 '자객 출마'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은 비명계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해 지도부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명계를 겨냥한 막말로 '당직 자객 정치' 처분을 받은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도 검증 심사를 통과했다.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정봉주 전 의원도 4년 전 성비위 의혹으로 공천 배제됐던 이력에도 검증대를 넘어섰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인천 부평을(홍영표 의원)에 출사표를 던졌고, 비례 양이원영 의원은 경기 광명을(양기대 의원)에서 표심을 다지고 있다. 대표적 친명계인 비례 김의겸 의원은 전북 군산(신영대 의원)에서 출마 선언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객 출마를 일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친명 자객공천 논란에 대해 "생각 자체가 저열하다"고 일축했



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천이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이 대표의 이같은 시도가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발표가 나올 때 마다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추가 탈당에 나설 수 있어서다. 공천 잡음이 심화되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총선 패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라

디오 인터뷰에서 "공천을 못 받는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바깥에 제3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해서 그쪽으로 가서 한 번 더 정치적 재기를 해보겠다는 분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이 윤석열 심판 구도만 부각하며 안주해왔다"며 "흐름상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면 커졌지 피하기 어려운데 이 후가 더 격정"이라고 말했다.

김혁민기자

이낙연, '호남 출마론' "주의깊게 듣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21일 제3지대 연대 세력 사이에서 제기되는 '호남 출마론'을 두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거취에 대해 "총선에 출마할 생

각이 없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며 "정치인이 국민 앞에 한 얘기를 쉽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동지들이 총정으로 저에게 출마를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신당 창당에 대해 분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열이 아니라 재건이고 확대"라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를 뺏아가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떠나신 분들을 투표장으로 모셔서 다시 우군으로 만든다면 아권이 커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북지역의 후보자 출마와 관련해서는 "전북 지역구 모두에 후보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신경민 의원은 출마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철용성 같은 양당의 벽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없는 분 중 신선하고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분들을 모시고 싶다"고 보탰다.

이슬비기자

이재명-이해찬 오찬 회동... "당 통합·공천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이해찬 전 대표와 만나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과 혁신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 전 대표와 1시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애초 이달 4일로 잡혔지만 이 대표의 휴가 피습으

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이해찬, 통합 유지, 공평한 공천 중요하다해" 이해찬 "총선 크게 이기는게 중요...도움되도록 노력"

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경제·민생·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다 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많이 여쭙겠다"며 "역시 당을 갈 등 없이 통합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도 큰 승리 이끌어내셨는데 말씀 잘 청해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 미래도 암울함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생활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도움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찬 뒤 브리핑을 갖고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관리로 민주당 통합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이번 총선 또한 공정하게 공천 관리하고 그 결과로 민주당이 더 하나 되는 통합의 길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김수권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